

「제7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」 수상작가 약력

□ 본상 수상작가 ‘메도루마 쉰’



메도루마 쉰 (Medoruma Shun) 소설가

- 1960년 출생 (일본 / 오키나와)
- 오키나와의 각종 사회문제(現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)에 대해 소설, 에세이, 평론, 웹 블로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실천적 지식인
- 오키나와에 대한 식민지적 차별과 억압, 미군 주둔 문제 등에 대해 문화적 승화를 통해 오키나와가 처한 권력 구도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해 온 오키나와 문학 대표작가
- 오키나와의 비극과 아픔은 곧, 과거 식민지 조선, 4.3 제주와 같은 우리의 근현대사와 정서적으로 공감대 형성
- 주요저서
 - 『혼 불어넣기』 (아시아, 2008)
 - 『물방울』 (문학동네, 2012) -
 - 『무지개 새』 (아시아, 2019)
- 수상내역
 - 아쿠타가와 문학상 (1997), 기야마 쇼헤이 문학상 (2000),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상 (2000)

□ 특별상 수상작가 ‘진은영’



진은영 소설가

- 1970년 출생
- 現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에서 문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번역가
- 감각적인 은유와 선명한 이미지로 낯고 익숙한 일상을 재배치하는 한편, 동시대의 현실에 밀착한 문제의식을 철학적 사유와 시적 정치성으로 풀어낸 작가
- 주요저서
 - 『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』 (문학과지성사, 2022)
- 수상내역
 - 김달진문학상 젊은시인상 (2004), 현대문학상 시부문 (2010), 천상병 시문학상(2013), 대산문학상 시부문 (2013), 백석문학상 (2022)